

Japan Weekly Digest

2011. 11. 12. ~ 11. 18.

☐ 금주의 이슈

- 일은총재, 경기회복 시나리오 수정가능성 내비쳐
- 일본정부, 아세안 인프라 지원

☐ 일본기업전략

- 파나소닉, 태양전지 해외생산
-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 급증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자가발전 설비활용 확대방안 발표
- 인프라 수주 위해 신흥국 인재육성 지원
- 에너지 수급실적 발표

☐ 보고서 리뷰

- 『글로벌 수요의 확보를 위해』
경제산업성, 산업구조심의회, 11월16일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은총재, 경기회복 시나리오 수정가능성 내비쳐

-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채무문제를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, 세계경제의 견인차인 신흥국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유럽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,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의 전제가 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바꾸어야 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침.
- 시라카와 총재는 유럽채무문제의 영향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가계의 지출억제, 긴축재정 강화, 유럽금융기관들의 융자억제 등을 통해 경기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.
- 나아가, 유럽의 금융기관이 달러자금의 조달환경 악화로 달러자산을 압축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어, 앞으로 조만간 신흥국에 대한 대출이 억제됨에 따라 신흥국경제에도 수출감소나 자금유출 등의 형태로 악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
- 신흥국들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압력과 경기부양간 정책선택의 어려움으로 연착륙에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임. 따라서 유럽채무위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, 신흥국들의 경기감속이 뚜렷해지는 경우 일본은행의 회복시나리오에는 그 전제부터 바뀌야 한다는 것임.
- 시라카와 총재는 유럽채무문제에 매직 솔루션(magic solution)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럽 각국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나 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요함을 강조

□ 일본정부, 아세안 인프라 지원

- 일본-ASEAN공동선언에서 일본정부는 총 사업비 2조엔 규모의 ASEAN 역내 인프라 정비에 협력키로 함.
- 주요 사업으로는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일본의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ASEAN역내정보 공유사업(1,700억엔), 베트남 국제공항건설 사업(4,600억엔), 인도네시아 송배전선 정비 사업(2,300억엔) 등임
- 또한 인도네시아, 필리핀의 섬들과 인도지나 반도를 연결하는 해상물류망 구축사업도 지원할 방침. ASEAN의 자금조달에는 정부개발원조(ODA) 및 국제협력은행(JBIC)의 자금을 활용할 방침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파나소닉, 태양전지 해외생산

- 파나소닉은 최초로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일관생산. 약 500억엔을 들여 2012년에 말레이시아에 신공장을 건설, 생산능력을 현재의 1.5배로 확대. 엔고 등에 대응, 코스트경쟁력 강화가 목표. 파나소닉은 박형TV나 반도체 등 비채산 사업들을 축소하기로 결정.
- 신공장에서는 자회사인 산요전기가 개발한 태양전지「HIT」를 양산하게 되는데, HIT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임.
- 파나소닉은 신공장을 태양광전지사업의 핵심거점으로 삼아 아시아나 미국·유럽에 공급, 앞으로 수요확대를 겨냥해 추가 증산이나 투자도 검토 한다는 방침
- 한편, 핵심부자재인 셀은 기술유출 방지 등의 이유로 일본내 2개 거점에서만 생산. 프라즈마TV용 패널을 제조하는 파나소닉 효고공장을 태양전지의 거점으로 바꾸어 증산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전환
- 파나소닉은 내년 1월 산요전기, 파나소닉전공과 통합, 그룹의 기술 및 판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샤프, 교세라에 이어 제 3위인 태양전지의 일본시장점유율(18.7%)을 내년도에는 수위로 끌어올릴 계획임.

□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 급증

- 중국 상무성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~10월기간중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5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65.5%나 증가, 대중국 투자 붐 부활움직임을 보임.
-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에 의하면, 금년 일본기업의 대중국투자의 특징은 제조업의 대형투자, 수송기계부품메이커의 진출, 대기업의 중국총괄회사 설립, 상해·강소성 등 중국 동부지역으로의 거점 확대 등 4가지임.
- 중국도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수출기지로서의 매력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동남아시아쪽으로 이전한지 오래임. 최근 대중국투자는 부품메이커 등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. 이에 중국시장 중시에서 연구개발이나 전략입안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진출도 증가하고 있음.
- 다만,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나 여러가지 진입규제, 언론통제 등을 비롯한 인터넷환경 등 투자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한층 확대 될지의 여부는 중국측의 대응에도 달려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자가발전 설비활용 확대방안 발표

-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자가발전설비 활용확대책을 발표. 발전 전기를 전력회사에 파는 경우 그만큼 절전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 골자
- 우선은 이번 겨울 절전대책으로 수지목표제를 실시하는 관서전력과 큐슈전력 관할 기업이 주된 대상임. 기업에게 자가발전 이용을 촉진하여 절전으로 인한 생산에의 영향을 최소화
-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시하게 됨. 우선 기업이 전력회사에게 자가발전의 여잉전력을 구입토록 요구. 기업으로서는 전력회사가 구입해준 만큼의 전력을 절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전수치목표를 상회하는 전력사용이 가능하게 됨.

□ 인프라 수주위해 신흥국의 인재육성 지원

- 경제산업성이 동남아시아 등의 인재육성 지원에 나섬. 향후 3년 정도로 현지 정부관계자 등 1,000명을 일본에 초청, 일본의 발전소 등을 견학시키는 외에 환경비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수도 실시할 계획임.
- 일본의 환경기술이나 일본기업의 환경관련기기 제조에 관한 이해력을 높여 장래 인프라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의도임.

□ 에너지 수급실적 발표

- 자원에너지청은 2010년도(2010.4-2011.3)에너지 수급실적을 발표
 - 최종 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4.0% 증가
 - 산업부문은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생산 증가로 6.8%증가
 - 민생부문은 더위로 2.8% 증가
 - 수송부문은 0.9% 증가
 - 에너지원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4.4% 증가
 - 석유의존도와 에너지 자급율은 저하
 - 석유의존도(석유의 총공급량/1차 에너지의 총공급량)는 2009년도의 45.2%에서 2010년도에 43.7%로 저하
 - 에너지의 자급율(1차에너지의 국내산출량/1차에너지의 총공급량)은 2009년도의 18.8%에서 2010년도에 17.3%로 저하

◆ 보고서 리뷰

『글로벌 수요의 확보를 위해』
경제산업성, 산업구조심의회, 11월16일

□ 일본기업의 해외전개 현황과 과제

- 이제까지 기업의 해외전개(수출+해외직접투자)는 대부분 글로벌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서 ①국내투자 확대, ②국내고용 확대, ③노동생산성 상승에 기여했음.
- 해외직접투자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투자 후 초기에는 국내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투자 후 수년이 지나면 국내고용이 확대
- 특히, 현지시장 확보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고용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침.
- 주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기업의 해외전개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기업들의 예상보다도 엔고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,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, ①국내 산업집적기반의 훼손, ②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력 감소에 따른 실업증대 우려로 공동화대책이 불가피
- 급격한 엔고로 국내 핵심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, 엔고가 시정된다 해도 다시 국내에서 산업집적의 메리트를 되찾기는 어려움.

□ 글로벌 수요의 획득과 고부가가치 분야의 방향성

- 국제분업하에서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분야에 특화하는 한편, 일본은 신흥국기업들과의 가격경쟁에 직면, 엔고분의 가격전가 어려움.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분업하에서 한층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필요가 큼.
- 이에 비즈니스모델의 방향성으로서 ①모노즈쿠리와 서비스의 융합에 의한 시스템화·5차산업화, ②브랜드화, ③니치톱(niche-top:대기업이 이미 진입해 있는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기보다는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을 시장을 개발)화, ④국제분업의 고도화 등이 효과적인 대응책임.

□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한 정책지원

- 일본이 글로벌수요를 확보,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분야

의 해외전개 지원 외에 ①고부가가치 분야의 입지추진, ②해외이익의 환류 추진이 필요

- ① 고부가가치 분야의 입지추진 : △미래개척기술의 개발지원, △아시아거점화 추진, △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정비
- ② 해외이익의 환류 촉진: △조세조약 및 사회보장협정의 조기 체결, △상대국의 송금규제 등을 완화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글로벌 수요의 확보를 위해』 경제산업성, 산업구조심의회, 11월16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shinsangyou/003_02_00.pdf

- (2) 『일본제조업의 전환』 경제산업성, 산업구조심의회, 11월16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shinsangyou/003_02_00.pdf

- (3) 『독도문제의 발단』, 일본 참의원, 11월16일

*출처: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rippou_chousa/backnumber/2011pdf/20111108065.pdf

- (4) 『노다수상 TPP교섭참가 결정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1월16일
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_1111c.pdf

- (5) 『강인한 경제(resilient economy)구축을 위한 정책제언』 산업경쟁력간담회, 11월17일

*출처:<http://cocn.jp/common/pdf/thema47-2.pdf>

- (6) 『경제모델에 의한 환경정책의 영향평가』 일본 환경성, 11월17일

*출처:http://www.env.go.jp/policy/keizai_portal/F_research/f-01-02.pdf